

한·중 한시의 근대적 대응 양상

- 茶山 丁若鏞과 定庵 龔自珍의 사회시를 중심으로 -

韓 梅*

차례

- I. 머리말
- II. '以風刺上'과 '臧否政事'의 詩學觀
- III. 實寫와 感慨의 詩創作
- IV. 맺음말

【국문초록】

18세기 말 19세기 상반기 한국이나 중국은 봉건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다. 내부에서는 근대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한편 봉건적 병폐가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나라와 민족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국에서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이자 우수한 시인인 다산 정약용과 중국에서 명말청초의 실학사상을 부활시킨 일군의 문인 겸 시인 가운데서 정암 공자진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시대적 위기를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고 경세치용의 학문으로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였다. 문학에 대하여는 다산은 '문이재도', '美刺勸懲', '諫'을 주장하고 정암은 '有用', '慷慨'를 내세웠다. 본질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현실참여의 문학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학관은 그들의 사회시 창작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산이나 정암은 당시 사회의 주요 문제인 민생의 질곡, 관리의 부정부패, 인재의 부진 등 폐단을 시가 작품에서 반영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나 견해를 피력

* 山東大學外國語學院朝鮮語系教授

하였다.

구체적인 표현 양상에 있어서 다산과 정암의 작품에 차이가 난다. 다산은 사회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사실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하고, 정암은 당시의 정치, 행정을 평가하는 의논 위주의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산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문학의 유용함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정암은 당대의 정치,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함으로써 문학의 유용함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같은 실학정신에서 출발한 두 사람은 현실 위기의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길에서 열심히 땀 흘렸다.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두 사람의 문학관의 차이와 타고난 기질과 생활하는 사회 문화 배경, 학맥 등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다산의 사회시에서 나타나는 사실적인 시정신 자체가 근대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문학사적 의미가 크고 정암의 사회시는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를 강개하게 의논하는 새로운 문학정신 즉 개성 해방을 주장하는 근대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사람은 모두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될 만하다.

주제어

丁若鏞, 龔自珍, 以風刺上, 臧否政事, 實寫, 感慨

【中文摘要】

18世纪末19世纪上半期, 中韩两国都处于从封建社会向近代社会过渡的时期, 两国内部产生了近代的一些萌芽, 与此同时, 封建社会的种种弊端积重难返, 社会矛盾日益尖锐。在这种情况下, 一批有良心的知识分子开始探索救国救民的道路, 其中的代表人物当属韩国实学思想之集大成者——茶山丁若鏞和中国实学思想复兴的代表——定庵龔自珍是。他们既同为主张经世致用拯救国家的实学派思想家, 又都是那个时代的代表性诗人, 创作出大批以社会现实为题材的优秀社会诗。对二者在文学思想、诗歌写作手法等的比较研究, 对探索中韩两国汉文诗歌如何反映前近代错综复杂的现实有一定意义。

就文学思想而言, 茶山主张“文以载道”, 特别强调诗歌的“下风刺上”, 要求诗歌实现讽

諫、讽喻的功能；定庵强调文学应该“有用”，为社会现实服务，为此诗人应在诗歌中抒发“感慨”。从本质上来说，他们都强调文学的实用性，尤其是社会功能，主张通过文学积极参与社会现实。基于这种文学思想，他们的诗歌中，民生疾苦、吏治腐败、人才匮乏、制度弊端等社会问题成为他们的主要题材。而在具体的表述中，两个人选择了不同的方式，茶山注重通过“述事”的方式，客观真实地描绘种种问题，使读者自然而然地受到感情上的冲击，意识到问题的严重性。定庵则大多通过简明的意象将对象形象化，然后直抒胸臆，坦率地表达出自己的感受和看法，而且后者往往是重点。这与他们的文学思想的些微差异以及个人气质、两国的文学传统、文化环境有着很大的关系。

总的来说，茶山与定庵的诗歌反映了他们对现实的关注，茶山真实反映现实的写作精神与近代文学的写实主义文学一脉相通，定庵慷慨臧否时事的诗风中包含着对民主和个性解放等近代精神的强烈追求。从这一角度来说，他们堪称中韩近代文学的先驱。

關鍵詞

丁若鏞, 龔自珍, 以風刺上, 臧否政事, 實寫, 感慨

I. 머리말

18세기 말 19세기 상반기 한국이나 중국은 봉건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다. 상공업의 발달과 시장경제의 형상에 따른 신분질서의 동요, 민중의식의 성장 등 근대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한편 상층의 부패와 하층의 빈곤으로 사회 모순이 첨예화되는 등 봉건적 병폐가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나라와 민족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국에서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이자 우수한 시인인 茶山 丁若鏞과 중국에서 실학사상을 부활시킨 핵심적인 문인 겸 시인인 定庵 龔自珍이 대표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자가 美庸 또는 頌

甫이며, 호는 俟庵, 茶山, 與猶堂, 洌樵 등 여러 가지를 썼다. 본관은 押海(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소속)이고 고향은 당시의 광주 마재이다. 1789년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지만 1801년부터 유배생활을 시작하고 1818년 비로소 유배에서 풀려 고향에서 만년을 보냈다. 암행어사, 참의, 좌우승부지 등을 거치다가, 한때 금정찰방, 곡산부사 등 외직으로 좌천되기도 했고 남인 출신으로 한때 정조의 중용을 받기는 했지만 노론파의 핍박으로 유난히 위기와 불행의 고비가 많았다.¹⁾ 그는 방대한 저술을 통해 시대의 변혁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경학, 정치, 경제, 예학, 고증학, 과학 등 광범한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 현재 2286수의 한시 작품이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어 있다.²⁾

다산보다 3,4년 늦게 태어난 정암 공자진(1792-1841)은 자가 璉人, 호는 定庵이며 절강성 仁和(지금의 항저우) 출신이다. 그는 1821년 내각중서에 임명되어 출사하였다. 1829년 5번째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 1839년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였고 184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정암은 문명이 높지만 과거 급제하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벼슬도 宗人府主事, 禮部主事 등 미관말직에 그쳐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경학, 사학, 철학, 문자음운학, 금석학에 정통하고 서북지역의 역사지리 관한 연구에도 성과가 있는 해박한 학자이고 경세치용과 사회변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사상가이며 청나라 말기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다. 상당한 수량의 한시 작품이 일실되고 현재 『龔自珍全集』³⁾에 600여 수가 수록되

1) 금장태, 『정약용-한국실학의 집대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년, 27-62쪽 참조.

2)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5, 33쪽.

3) 공자진,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년.

어 있다.

다산과 정암은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한·중의 가장 선진 사사가 겸 시인으로 봉건사회의 위기를 통찰하고 진보적 정치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당대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자기의 생각, 위기 타개 방안 등을 제시한 사회시를 많이 창작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근대에 진입하기 직전 한·중 양국 한시작품에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각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두 시인의 사회시에 대한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⁴⁾ 이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이다. 본고에서는 다산과 정암의 시학 사상을 고찰하고 현실과 가장 밀접한 그들의 사회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형성 원인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5.
 송재소, 『한국 한문학의 사상적 지평』, 돌베개, 2005.
 정약용 저, 송재소 역주, 『다산시선』, 창작과비평사, 1981.
 심경호, 「다산의 문학에 나타난 우환의식과 구세적 열정」, 『다산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윤경수, 「다산시의 사실성 - '시량', '애절양'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1990.
 공자진 저, 곽연례 주, 『공자진시선』, 인민문학출판사, 2009.
 유증걸 외 공저, 『중국근현대문학사조사』(상), 상해문예출판사, 2008.
 맥약봉, 『공자진전문』, 안휘대학출판사, 2005
 곽연례, 『중국근대문학발전사』1, 고등교육출판사, 2001.

II. ‘以風刺上’과 ‘臧否政事’의 詩學觀

다산 정약용과 정암 공자진은 모두 명확한 문학관을 갖고 있었다. 다산은 문이제도의 정통 유교 문학사상을 주장한다.

문장은 도를 신는 것이요,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한 세상을 바로잡아 구제하기에 부족하고 뜻이 비어 있어 정립된 바가 없으면, 아무리 그 문장이 요란스럽고 분방하며, 그 시가 곱고 아름답더라도, 빈 수레를 몰아서 소리를 내고 광대가 풍월을 읊는 것과 같다.⁵⁾

위 인용문에서 다산은 한 세상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도’나 ‘지’가 결여되어서는 아무리 화려한 시문이라 하더라도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역설한다. 다산은 또한 있는 ‘도’나 ‘지’가 무엇인지를 『시경』에 대한 논평에서 설명하였다.

시삼백편이란 모두 충신, 효자, 열부, 양우의 측달하고 충후한 마음이 발한 것이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으면 시가 안되고, 시국의 잘못과 풍속의 폐폐함을 통분하지 않으면 시가 안되고, 찬미와 풍자, 권선징악의 뜻이 없으면 시가 안된다.⁶⁾

여기서 다산은 시가의 전범인 『시경』를 논평하면서 ‘愛君憂國’, ‘傷時憤

5) 정약용, 『西園遺稿序』, 『與猶堂全書』 제1집 제13권, 신조선사, 1970, 7쪽. “文所以載道, 詩言志者也. 故其道不足以匡濟一世, 而其志枵然無所立者, 雖其文嘯轟犇放而詩藻麗, 是猶驅空車以作聲, 而倡優談風月也.”

6)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제21권, 신조선사, 1970, 9쪽. 「寄淵兒, (戊辰冬). “三百篇者 皆忠臣孝子烈婦良友惻悃忠厚之發.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俗’, ‘美刺勸懲’이 시가에 담아야 할 뜻들이라고 말한다. 즉 시가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의 시학은 ‘風’에 대한 해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上以風化下란 風教이고 風化이고, 風俗이며 그 성조는 平聲이고 下以風刺
上이란 風諫이고, 風刺이고, 風喻이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다산은 ‘국풍’의 ‘風’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평성으로 읽히는 ‘風’은 치자의 백성에 대한 풍교를 뜻하지만 거성으로 읽히는 ‘風’은 ‘諷’과 같은 것으로 아랫사람이 ‘以風刺上’하는 ‘風諫’, ‘風刺’, ‘風喻’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국풍’과 ‘대아’, ‘소아’ 모두를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간서로 보아도 무방하다⁸⁾면서 ‘윗사람’ 즉 군주에게 간언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풍자’를 ‘美刺’⁹⁾에 포함된 개념으로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말하며 ‘풍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風이란 바로 諷이다. 좋은 일을 서술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거나 악한 일을 서술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쁘거나 분하고, 부끄럽거나 두렵고 슬프거나 뉘우치도록 감동시킨다. 그리하여 억지로

7) 정약용, 「國風」, 《詩經講義補遺》, 『여유당전서』 제22집 제20권, 신조전사, 1970, 461쪽. “上以風化下者, 風教也, 風化也, 風俗也. 其音爲平聲. 下以風刺上者, 風諫也, 風刺也, 風喻也.”

8) 정약용, 「詩五首」, 『여유당전서』 제1집 제7권, 46쪽. “古人百計格君心, 矇誦工歌被素琴. 全把國風兼二雅, 直須看作諫書林.”

9) 정약용, 「시경강의」, 『여유당전서』 제2집 제17권, 5쪽. “今若舍美刺二字, 而求詩之所以爲詩, 則不几於舍褒貶二字, 而求春秋之所以爲春秋也乎?”

끌어당기지 않고서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공격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은 국풍이 지어졌고 시경이 온 천하를 교화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¹⁰⁾

위 인용문을 통해서 다산은 직접적으로 정서를 토로하거나 주장할 내 세워 시의 사회 기능을 실현하는 것보다 일을 서술함으로써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암 공자진도 문학의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당나라 경제적인 문인 陸贄(754-805)가 태학에 종사되기로 한 소식을 듣고 그는 육지야말로 정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는 문인의 본보기라고 하면서 “성인의 목표란 유용함을 위주로 한다.”¹¹⁾고 언급하여 문학의 진정한 가치가 유용함에 있다는 관점을 내비쳤다.

정암의 문학관은 당대 문풍에 대한 비판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京師樂籍說』에서 대도시에 대체로 모두 악적이 설치된 것은 통치자가 문인들을 속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그들로 하여금 봄날의 아침이나 가을의 밤에 염정시나 여유자적 유희하는 말만 지어내게 하여 그들의 재능을 소모하고 나라의 중대한 일을 의논하고 정사를 포괄하는 글을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한 가지 말

10) 〈詩經講義補遺〉, 『國風』, 『여유당전서』 제22집 제20권, 신조선사, 1970, 461쪽, “風也者, 諷也. 或述善事, 使自喻之; 或述惡事, 使自喻之. 悅之慎之, 愧之懼之, 哀之悔之, 感之動之. 不提不挈, 使自喻之; 不搯不擊, 使自喻之. 此風詩之所以作, 而詩之所以爲教於天下也.”

11) 공자진, 「同年生吳侍御(杰)疏請唐陸宣公從祀睿宗, 得俞旨行…」,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484쪽, “曰聖之的, 以有用爲主. 炎炎陸公, 三代之才. 求政事在斯, 求言語在斯, 求文學之美, 豈不在斯?”

만 듣게 되어서 정사가 편해지고 많은 선비들이 몸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¹²⁾

이 글에서 정암은 남녀지정을 읊조리는 음풍농월의 시문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군국대사를 의논하고 정사를 포폄하는 글이 비로소 여론을 조성하고 위정자들이 좋은 정치를 하도록 압력을 주는,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암도 시의 사회적인 효용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歌筵有乞書扇者」라는 시에서 정암은 구체적인 시론을 제시하였다.

天教僞體領風花, 하늘이 가짜 문체가 시문의 영수로 하도록 하고,
 一代人材有歲差, 한 세대의 인재가 날로 비열해지거나,
 我論文章恕中晚, 나는 중, 만당의 시문을 너그럽게 평가하여
 略工感慨是名家, 조금이라도 자기의 감개를 표현하면 명가로 칭하노니
 라.¹³⁾

그는 당시 문단에서 성행하는 현실도피적인 문풍과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허위적인 작품을 두고 “가짜 문체(僞體)”라고 칭하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한시 작품에서 진실된 생각을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정암이 생각하는 ‘감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12) 공자진, 「京師樂籍說」,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118쪽. “使之春晨秋夜爲窻體詞賦遊戲不急之言, 以耗其才華, 則議論軍國臧否政事之文章可以毋作矣. 如此則民聽壹, 國事便, 而士類之保全者亦衆.”

13) 공자진, 「歌筵有乞書扇者」,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490쪽.

사람이 있으면 꼭 마음이 있는 법이고 마음이 있으면 꼭 눈과 귀가 있는 법이고 눈과 귀가 있으면 꼭 상하 백년에 대한 견문이 있는 법이다. 견문이 있으면 같고 다름을 고증하는 법이고 같고 다름을 고증하면 마음 속으로 옳다고 여기거나 그릇되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옳거나 그릇되다고 여기면 꼭 감개격분하는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감개격분하는 마음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이 있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행하고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린다. 감개격분하는 마음이 있으나 아래에 있어서 힘이 없으면 자기가 옳거나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다.¹⁴⁾

위 인용문에서 정암은 ‘感慨激奮’을 깊이 있게 해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감개격분’은 식견이 문인, 특히 권력이 없는 하층 문인들이 정사의 옳고 그릇됨을 평가하고 애증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암이 시문 창작을 천하사를 논하는 도구와 사회 참여의 중요한 방식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實寫와 感慨의 詩創作

다산과 정암은 모두 당대 현실의 위기를 간파하였다. 다산은 당대사회가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부분이 없다’¹⁵⁾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14) 공자진, 「상대학사서」,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319쪽. “夫有人必有胸肝, 有胸肝則必有耳目, 有耳目則必有上下百年之見聞, 有見聞則必有考訂同異之事, 有考訂同異之事, 則或胸以爲是, 胸以爲非. 有是非, 則必有感慨激奮. 感慨激奮而居上位, 有其力, 則所是者依, 所非者去. 感慨激奮而居下者, 無其力, 則探吾之是非, 而昌昌大言之.”

15) 정약용, 『經世遺表』 引, 『여유당전서』 제5집, 신조선사, 1970, 2쪽. “蓋一毛一發, 無非病耳.”

경고하고 정암 공자진은 ‘변란이 멀지 않았다’¹⁶⁾고 예언하였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다산과 정암은 모두 문학의 힘을 동원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 문제를 시가 작품에서 제시하여 세인을 깨우치고 나라를 구제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민생의 고통, 관리의 부패, 인재제도의 폐단 등이다. 그렇지만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두 사람의 작품은 사뭇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백성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현실에 대하여 다산은 「哀絶陽」에서 한 농부가 자기의 생식기를 자르는 비극적인 사건을 서술하여 나라 세금의 잡다함과 그것을 구실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지방관리를 폭로한다. 그의 유명한 삼리시에서 아전들이 굶어죽은 시체가 널려있는 마을을 덮쳐 세금을 내라고 행패를 부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로 하여금 저절로 백성에 대한 동정심과 관리, 아전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한다. 정암도 청나라의 주요 수입원으로 된 강남지역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품에서 묘사하였다. 7언절구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시작부터 민생을 위해 손쓰지 않는 나라의 정책을 비판하고 강남에 대한 지나친 약탈로 조성한 백성 생활의 피폐함을 “獨倚東南涕淚多(오로지 동남지역을 의지하니 백성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간단명료하게 나타낸다. 관리들의 탐오행위도 구체적인 묘사 대신에 “國賦三升民一鬥(국가의 토지세가 석 되라 하지만 백성이 한 말을 바쳐야 하다니)”로 요약하였다. 마지막 구절인 “屠牛那不勝栽禾(농사짓는 것보다 차라리 소를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¹⁷⁾에서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16) 공자진, 「乙丙之際箚議第九」,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7쪽. “亂亦竟不遠矣.”

17) 공자진, 「己亥雜詩」, 제123수,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521쪽.

분개를 반문의 형식으로 강하게 표출한다.

다산과 정암은 모두 봉건적 용인제도의 폐단을 인식하였다. 다산의 「고시 24수」의 제14와 제15수, 그리고 「夏日對酒」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작품들에서는 별열 출신 자제와 서민 집안 출신의 자제를 각 한 명씩 등장하게 하여 출생과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서민 출신의 재질이 뛰어난 아이는 신분의 제한 앞에 좌절하고 학문을 포기하게 되며, 지체 높은 집안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귀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문에 열중하지 않게 되므로 “나라에 큰 인재 찾을 수 없고, 높은 가문 몇 집만 제멋대로 놀아나네(邦國少英華, 高門日馳驟).”¹⁸⁾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중국에서는 17, 18세기 강희, 건륭제의 문자옥을 이용한 사상, 문화 통제로 인재가 부진하였다. 공자진은 이러한 정책이 인재를 말살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¹⁹⁾ 시 작품에서 인재가 없다고 자주 한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一睨人材海內空(한번 흘겨 보더니 해내에 인재가 없더라)”²⁰⁾, “何日重生此霸才(언젠가 이러한 큰 인재가 다시 태어나겠는가)”²¹⁾ 등이 종종 보인다. 인재에 관련된 정암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기해잡시」 제125수에서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답답하고 생기가 없는 현실을 ‘萬馬齊喑’(만 마리의 말이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다)로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현실이 슬프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어서 “我勸天公重抖擻, 不拘一格降人材(하느님이여,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온갖 속박을 벗어던지고 인재를 내려주십시오)”²²⁾라고 폭풍우와 같은 급격한 사회 변혁의 도래를 열정적

18) 정약용, 「고시24수」 14, 15, 『여유당전서』 제1집 제2권, 신조선사, 1970, 25쪽.

19) 공자진, 「乙丙之際著議第九」,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6쪽.

20) 공자진, 「夜坐其二」,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467쪽.

21) 공자진, 「기해잡시」 제136수,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522쪽.

22) 공자진, 「기해잡시」 제125수,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521쪽.

으로 호소한다.

또한 인부의 고된 노동을 소재로 노동자에 대한 동정과 통치자에 대한 질책을 표현하는 다산의 〈견여탄〉과 정암의 〈기해잡시〉 제83수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견여탄〉에서 가마를 메고 산길을 다니는 가마꾼이 험한 길을 오를 때, 골짜기를 건널 때, 좁은 길, 바위 옆이나 절벽 옆을 지날 때의 서로 다른 동작과 걸음걸이를 생동하게 그려낼 뿐 아니라 거친 숨소리, 비오는 듯한 땀방울, 어깨에 남은 밧줄 자국 등 가마꾼의 힘든 모습도 생생하게 묘사해 낸다.²³⁾ 정암의 『기해잡시』 제83수에서는 강변에서 배를 끄는 인부가 일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운하에서 왕래하는 식량 운반 선박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고 고생을 하겠는가는 한 구절로 개괄적으로 표현한다. 그 뒤를 이은 두 구절인 “我亦曾糜太倉粟，夜聞邪許淚滂沱。(나도 역시 태창의 식량을 소모한 적이 있으니 밤에 인부들의 힘겨운 노동요를 들으며 눈물이 비 오듯 하는구나)”²⁴⁾은 노동자에 대한 연민, 통치자의 참혹한 착취에 대한 분노와 관리의 일원으로서의 자아반성 등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산은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시가 작품에서 주로 구체적인 사건을 서술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한 후 시상을 전개하거나 하나 하나의 장면에 대한 정밀한 묘사에 많은 필묵을 할애하고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는 앞의 묘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발된 정서와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실주의적 시

23) 정약용, 「견여탄」, 『여유당전서』 제1집 제6권, 신조선사, 1970, 32-33쪽.

24) 공자진, 「기해잡시」 제83수,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 517쪽. “只籌一纜十夫多，細算千艘渡此河。我亦曾糜太倉粟，夜聞邪許淚滂沱。”

정신을 지니고 있었던' 시인으로 평가된다.²⁵⁾ 정암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 문제를 제시하되 사건이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피하고 특징이 선명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면서 강한 사회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태도, 견해, 정서 내지 소망 등을 열정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다산 정약용과 정암 공자진의 사회시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시가 사상 및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8세기 말 19세기 상반기 한·중 양국의 위기적인 국면에 직면하여 다산과 정암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음풍농월, 허문허식의 문학을 부정하고 사회현실에 입각해 폐단을 폭로하고 정사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구제하는 것을 문학의 참된 가치로 보았다. 다산은 '문이재도'에서 출발하고, 아랫사람이 '풍'으로 윗사람을 깨우치는 것을 주장하고 정암은 쓸모 있는 문학, 군국의 대사를 의논하고 정사를 포폄하는 문학을 추구하였다. 본질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현실 참여의 문학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인 시화시 창작 양상을 보면 두 사람 사이 적지 않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다산은 현실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감동되고 깨우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지만 정암은 사회 문제에 대한 시인 자신의 '感慨' 즉 정서, 평가, 견해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이것은 먼저 두 시인의 시가 사상 차이에

25) 송재소, 「다산시의 이해」, 『다산시선』, 창작과비평사, 1981, 354쪽.

서 비롯된다. 다산은 시가를 통하여 아랫사람이 일을 서술하여 윗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한다고 주장한다. 『견여탄』의 마지막 구절인 “견여도 그려내어 임금님께 바칠거나(欲作肩輿圖, 歸而獻明主)”²⁶⁾도 이 점을 입증한다. 그와는 달리 정암은 위기의 시대에 지식인들이 마땅히 문학을 통해서 정치를 포폄하고 시국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표출하여 위정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현실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한·중 양국의 문학 전통과 관련이 있다. 적절한 이미지의 사용과 풍부한 정감, 날카로운 견해가 어우러진 공자진의 시풍은 서정성과 이미지를 강조하는 당시풍과 이치를 표현하는 송시풍의 성공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시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나 장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가사 장르와 상통한 면이 많아 보인다. 서술 위주로 되어있고 편폭이 상대적으로 길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들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두 시인의 작시법 상의 차이는 기인적인 기질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산의 여러 저술로 보면 도덕윤리를 중요시하는 근엄하고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로 추측되지만 정암의 성격은 정반대로 솔직하고 다정다감하며 자유분방한 성격이다.²⁷⁾ 그 외에도 두 시인이 처하는 사회환경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때 당시 청나라에서 강개하게 천하사를 논하는 것이 문인들 사이 성행하는 하나의 풍조였지만 조선은 아직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이었다. 그러므로 정암은 대담하게 자기의 주장과 정감을 표현할 수 있었고 다산은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우회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였을 것이다.

26) 정약용, 「견여탄」, 『여유당전서』 제1집 제6권, 신조선사본, 33쪽.

27) 공자진, 「乙丙之際著議第六」,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년, 4쪽.

다산과 정암은 비슷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 양상에 차이가 난다. 다산은 현실을 진실되게 반영함으로써 문학의 유용함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정암은 당대의 정치,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함으로써 문학의 유용함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다산의 사회시에서 나타나는 사실적인 시정신 자체가 근대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 정암의 사회시는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를 강개하게 의논하는 새로운 문행정신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성 해방을 주장하는 근대의식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중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공자진, 『공자진전집』, 상해고적출판사, 1975년, 4쪽, 6-7쪽, 118쪽, 319쪽, 467쪽, 484쪽, 490쪽, 517쪽, 521-522쪽.
- 공자진 저, 광연례 주, 『공자진시선』, 인민문학출판사, 2009.
- 광연례, 『중국근대문학발전사』1, 고등교육출판사, 2001.
- 금장태, 『정약용－한국실학의 집대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27-62쪽.
-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5, 33쪽.
- 노선경, 「공자진 미학 사상의 특색」, 『하북대학학보』, 1986년 1호.
- 맥약봉, 『공자진전론』, 안휘대학출판사, 2005.
- 봉문학, 「공자진의 문학 사상」, 『안휘사범대학학보』, 1987년 2호.
- 손옥하, 「조선 시인 정약용의 시가창작 풍격」, 『작가평론』, 2011년 2호.
- 송재소, 『한국 한문학의 사상적 지평』, 돌베개, 2005, 354쪽.
- 심경호, 「다산의 문학에 나타난 우환의식과 구세적 열정」, 『다산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유증걸 외 공저, 『중국근현대문학사조사』(상), 상해문예출판사, 2008.

- 윤경수, 「다산시의 사실성-‘사랑’, ‘애절양’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1990.
- 이철희, 「사회시에서 다산과 치원의 차이」, 『다산학』 12호, 2008.
- 정약용 저, 송재소 역주, 『다산시선』, 창작과비평사, 1981.
- 정약용, 『여유당전서』, 신조선사, 1970, 제1집 제2권 25쪽, 제1집 제6권 32-33쪽, 제1집 제7권 46쪽, 제1집 제 13권 7쪽, 제1집 제21권 9쪽, 제2집 제17권 5쪽, 제5집 2쪽, 제22집 제20권 461쪽.
- 주월량, 「공자진 미학 세계에서의 자아」, 『천진사범대학교학보』, 1986(2호).

Abstract

The Aspects of Coping with Modern Period in Jeong Yak-Yong(丁若鏞)
and Gong Zizhen(龔自珍)'s Social Poems

Han, Mei

From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both China and Korea came to the end of feudal society and suffered acute social contradictions. Intellectuals started to search the way of rescuing the country and the people, among whom Gong Zizhen and Jeong Yak Yong were typical representatives who created lots of excellent poems themed on the real society.

They both stressed the social functions of literature. Jeong emphasized that poems should carry "people's criticism of the rulers" and have the function of tactical expostulation and allegory, and Gong believed that literature should "comment on politics". Yet they followed different paths in poem creation. Jeong exposed social problems by objective description of the reality, while Gong frankly expressed emotional thoughts on political affairs. Such difference should be remarkably attributed to their different literary thoughts and personal temperaments as well as literary traditions and social environments of the two countries.

Key Word

Jeong Yak-Yong, Gong Zizhen, criticism of the rulers, comment on politics, realistic description, emotional thoughts

▪ 논문투고일 : 2012.6.14 심사완료일 : 2012.7.25 게재결정일 : 2012.8.6